

# “설 민심 잡아라” ... 文-安 22일 광주 대격돌

### 문재인, ‘포럼광주’ 출범식 시민과 대화 반문정서 희석 노력

### 안철수, 청문회 보고회 콘서트 열어 지지층 재결속 주력

대선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호남 민심잡기에 나선다.

전통적 야권의 텃밭인 호남 지지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대선 유력 주자가 대선 후보를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않은 ‘광주’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세론’을 앞세워 광주에서 1박2일 동안 반문(反文) 정서 희석을 노리고, 안 전 대표는 당의 최대 지역적 기반인 광주에서 전통적 지지층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지지 조직인 ‘포럼광주’ 출범식에 연예인 김제동과 함께, 안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스타인 같은 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의 청문회 보고회에 참석한다.

새해 첫날 광주를 방문했던 문 전 대표는 오는 22일 광주를 1박2일 일정으로 다시 찾는다.

22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자신의 지지모임인 ‘포럼광주’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행사에 시민과의 대화를 토크 형식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예인 김제동씨가 사회자로 나서서 함께 행사를 이끌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포럼광주 출범식 다음날에는 광주전남언론인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 비전 등을 소개하는 등 뽀빠한 1박 2일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광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도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맞불을 놓는다.

김경진·이용주 국회의원을 초청해 박근

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결과 보고 토크 콘서트를 연다.

예초 19일 예정됐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22일로 날짜를 바꿨다.

청문회 스타로 등장한 김경진·이용주 의원이 청문회 결과와 청문회 뒷 이야기를 지역민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기획됐지만, 당의 대선 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

가 등장하면서 행사의 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7일 처가가 있는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 방문에 이어 18~19일 전북을 방문하는 등 최근 호남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안 전 대표가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토대로 지난 4·13 총선 때 호남에서 불었던 ‘녹색 돌풍’을 재연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특히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행사에 총출동하는 등 국민의당이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호남에서의 세몰이

를 재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도를 민주당에 추월당해 주춤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기회로 당 지지도도 높이고 대선 후보 관심도도 높일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재정비한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당내 대선 후보인 안 전 대표 띄우기와 함께 호남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꺾기 위한 행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뚜렷한 대선 후보 지지가 없는 광주와 호남을 상대로 양 당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르GO 내리GO’ 건강앱 설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오르GO 내리GO 건강계단’ 사업을 광주 최초로 실시하기 위해 광주 북구 보건소(소장 김은숙) 직원들이 19일 임동 주공아파트 세대 앞 계단에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보드를 설치하고 있다. NFC 보드는 어플 다운로드 후 계단을 처음 오를 때 NFC 보드를 찍고 계단을 마지막으로 나올 때 다시 찍으면 핸드폰 액정 화면에 당일 소모 칼로리와 이동충수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형식

### 조달청에 결정 의뢰 무책임 행정”

#### 시의회, 광주시에 해명 요구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택)는 19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차량형식 결정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산건위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달청을 통해 차량형식을 결정하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조달 입찰 결정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산건위는 또 “시의 조달 입찰 결정은 시가 가격과 공정성 시비에만 치중해 시민 편의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건위는 광주시의 열차운영시스템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시가 차량과 검수를 하나로, 신

호·전기·통신·물품 분야를 묶어 별도로 발주하고 공사분야도 따로 발주하려고 하는데 이는 하자가 유지보수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다”며 통합발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의회에서 제기한 공평한 입찰 기회 요청 등을 고려해 조달 입찰을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열차운영시스템 발주는 원활한 인터페이스 유지 및 안전한 차량 운영을 위해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조달 입찰을 의뢰해 다음 달까지 도시철도 2호선 차량형식을 결정해 3월 실시설계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올 친환경 농산물 4만2000ha 인증 추진

#### 인증 농가 지원 등 640억 투입

전남도가 2017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목표를 4만2000ha로 정했다. 무농약 농가의 유기농 전환, 인증 내실화 등을 위해 6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농의 경우 지난해보다 968ha가 많은 7000천ha, 무농약은 2620ha가 많은 3만5000ha를 올해 지정할 예정이다. 무농약 단계에 있는 농가를 유기농으로 상향하도록 유도하고, 인증 품목도 벼 중심에서 채소나 과수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 실천의 기반이 되는 흙 살리기를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녹비종자를 공급한다. 또 인증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117억원, 잔류

농약 검사비 6억원, 마을이나 들녘 단위로 50~100ha 등 단지가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2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비 334억원을 확보해 유기농의 경우 ha당 벼 120만원, 채소 130만원, 과수 150만원을 지원하고, 과수 비가림하우스 시설 5ha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적불금 100억원을,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유기농 6년차 이상, 무농약 4년차 이상 농가에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무농약 지속 직불금 63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흑산공항 시공사 세번째 유찰 ... 수의계약 검토

#### 전남도 “사업자 선정 연말 착공”

#### 금호 컨소시엄 선정 가능성

신안 흑산도에 들어설 공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세번째 유찰됐다. 이에 따라 항공청은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한 흑산공항 설계·시공 일괄 입찰에서 마감일인 18일까지 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

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단독 참가했다고 밝혔다.

단독 입찰로 인해 지난해 이뤄진 두 번의 입찰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은 무산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추가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에 따라서는 금호 컨소시엄이 사업

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번 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되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가격(1336억원)을 확정하고 기술로 업체를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형태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이 사업 추진에 보류 결정을 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아 연말 착공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전남도는 1분기 안에 재심의 통과를 목표로 서울지방항공청 등과 보안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다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서두르면 연말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활주도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진도 전북 수산물 지리적표시 품목 등록

#### 전남도, 전국 80% 보유

전남도는 19일 “진도지역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전북이 정부의 수산물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다.

전남은 이번에 진도전북이 새로 등록됨으로써 지난 2009년 전국 제1호로 등록된 보성 벌교꼬막을 시작으로 완도 전복, 고흥 굴 등 19개 품목을 보유하게

됐다. 전국 24개 지리적표시 수산물 가운데 79%를 차지한 셈이다.

진도전북은 물살이 빠르고 수온이 낮은 진도지역 지리적 특성 때문에 탄탄한 육질을 자랑하고, 맛뿐만 아니라 철분, 인, 아미노산 등 영양도 풍부하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인 우수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확대와 등록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 어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김 신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